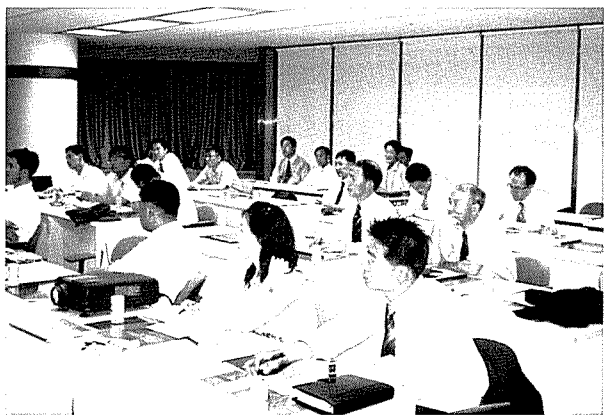


# 의류업종 전산인들의 모임 Fashion IT 협의회

글 정윤희 편집장 unigood@paran.com



●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의식주(衣食住)가 필요하다. 이 중 의복은 그 사람의 사회성과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언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의복의 트렌드는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함께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 이후 패션(fash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시선이 집중되고 소비를 불려일으키는 가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몸에 밀착해 있는 의류업의 전산담당자들 모임인 'Fashion IT 협의회'에 대해 소개한다. 의류업종 전산담당자들의 모임인 Fashion IT 협의회는 2003년 9월, 20여 개 사의 전산담당자들의 만남으로 시작됐다.

윤정선 회장(캠브리지 전산실장)은 “같은 업종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한다는 동기로 자연스럽게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동일 업종에서 일하다 보니 업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을 찾고, 프로젝트 진행시 경험담을 듣는 등 전산업무에 대한 정보교류가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윤정선 회장은 한진해운 전산실에서 근무하다, 휠라코리아로 옮겨 4년동안 전산업무를 담당했고 1997년부터 캠브리지 전산실장을 맡고 있다.

윤정선 회장은 “의류업은 신사복, 숙녀복, 아동복, 정장, 캐주얼, 아웃웨어, 인웨어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IT환경은 기업마다 다르고 복잡하다”며 “의류업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IT시스템은 재고관리시스템과 고객관리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2명, 고문, 감사로 구성

되어 있다. 2년째인 올해, 회원사는 80여 개 사로 늘어났다. 협의회 운영 방식은 정기세미나, 소모임, 번개 등 활발하게 진행되며, 매분기마다 회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주로 후원 업체에서 소개하는 솔루션 소개 위주이다. 세미나 참가비는 무료이며, 매달 일만원씩 회비를 걷고, 후원사들의 지원금으로 협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패션이티 후원사인 (주)두손컴테크 주최로 세미나가 실시되었고, 6월에는 (주)티맥스소프트 후원으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협의회에서는 정기세미나 외에 친분을 유지하는 소모임(골프, 낚시, 등산)을 적극 활성화시키고, 앞으로는 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8명 이상이 참석할 시에는 소정의 지원금을 후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회원사들의 중점과제는 경비절감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정보, 서비스 등을 파악하여 공동구매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Fashion IT 협의회 회원들이 지지치 않고 열성을 보일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데 있다.

여기에서 의류업종 IT담당자라는 공통분모가 더해졌을 뿐이다. 회원들이 퇴사이후에도 소중한 인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윤정선 회장은 굳게 믿는다.



Fashion IT협의회 윤정선 회장 (캠브리지 전산실장)

앞으로 Fashion IT 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윤정선 회장은 “지금까지 2년동안 회원 상호간의 결속력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정보교류와 프로젝트를 협력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Users